



VIDO Monthly Report *Jun.*

6월 VIDO 월간 레포트

VIDO Report는

미디어아트 트렌드와

VIDO의 새로운 소식

그리고 미디어 캔버스를 채워가는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6월의 VIDO Report 키워드 및 요약

■ Media Art Trend

- 쿨한 외계인 디지털 슈퍼모델 'Zlu'
- 미디어 아트 & 파인 다이닝 '카니 랩(KANI LAB)'

■ VIDO's News

- VIDO-SEOULBOUND,
2023 마이크로서울 페스티벌에서 미디어 아트 공개

■ VIDO's Artist

- 원서(WONSEO)

Media Art Trend

Media Art Trend

6월의 미디어아트 이슈

쿨한 외계인 디지털 슈퍼모델 Zlu



Zlu with Vogue (출처 2022 zut studio)

최근 모든 패션 업계는 한 모델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쿨한 외계인이라고 소개하는 디지털 슈퍼모델 Zlu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한 영상으로 주목받는 Zlu는 실존 모델이 아닌 컴퓨터 그래픽과 3D 모델링을 통해 제작된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를 제작한 zut studio는 현실 세계의 영상을 미리 촬영하여 Zlu의 홀로그램을 입히는 방식으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디지털 모델로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등장하며 어떤 패션이든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건물만큼 큰 키, 파란 피부, 큰 녹색 눈동자의 Zlu는 칼 라거펠트, FILA, CHIMI, GCDS, 풀앤베어 등 콜라보 콘텐츠를 제작하며 현재 패션 브랜드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신체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던 런웨이까지 디지털 슈퍼모델이 활약하며 신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디지털 아트와 어떤 분야가 결합하여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까요?

[Go to Zlu instargram](#)

미디어 아트 & 파인 다이닝 '카니 랩(KANI LAB)'

미각은 물론 눈과 귀, 모두 즐길 수 있는 몰입형 다이닝을 소개합니다



사진 출처: 카니 랩

미디어 아트와 프리미엄 미식 경험을 결합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카니 랩(KANI LAB)' 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카니 랩은 혁신적인 요리 경험을 제공하는 첫 번째 레스토랑으로, 맵핑한 미디어 아트들과 크랩 다이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주 메뉴는 크랩 요리로, 프리미엄 해산물 코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디쉬는 바다를 컨셉으로 플레이팅하며 🌊안개 낀 새벽 바다 풍경, 🌅일몰을 닮은 드링크, ✂해초를 곁들인 요리로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줍니다.

코스 요리와 함께 홀에서는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통해 아침 해가 떠오르는 새벽녘부터 은하수가 펼쳐지는 밤까지를 보여 줍니다. 고객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분위기에 식사하는 동안 '항해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미디어 아트와 어우러지는 색다른 미식 경험을 통해 고객들이 그저 식사가 아닌 초월적인 순간까지 느낄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이색적인 경험을 위해 '카니 랩'에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더 알아보기

VIDO's News

VIDO-SEOULBOUND, 2023 마이크로서울 페스티벌에서 미디어 아트 공개

‘2023 마이크로서울 페스티벌 소울바운드’ 압도적인 스케일의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비주얼 아트 DJ 라인업으로 2023년 9월 9-10일 개최합니다



[클릭 시 기사 본문으로 이동](#)



출처: 마이크로서울 페스티벌

VIDO는 올해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 '2023 마이크로 서울 페스티벌 : 소울바운드'에 함께하여 다양한 미디어 아티스트와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VIDO 아티스트로 2023 마이크로 서울 페스티벌에 Calars (칼라스), Kimko(김코), Nullus(널러스), OBTI(옵티), WONSEO(원서) 작가가 참여하여 EDM 음악과 함께 몰입감 깊고 작가들만의 세계관이 담긴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작년 마이크로 서울 페스티벌은 국내/외를 대표하는 EDM 뮤지션들과 힙합 뮤지션들의 공연으로 총 2만명이 넘는 관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EDM 사운드 인터랙티브 돔인 **리돔 (Rhydome)**, 28m의 국내 최고 높이와 압도적인 반원 형태의 디스플레이 무대인 **빅문 스크린 (Bigmoon Screen)**을 배치하며 EDM 사운드와 최신 기술을 집약한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주관사이자 서울랜드 자회사인 RXM의 최세진 본부장은 “리돔만을 위해 1년여간 제작한 미디어 아트와 EDM 사운드는 관객들에게 환상적인 몰입형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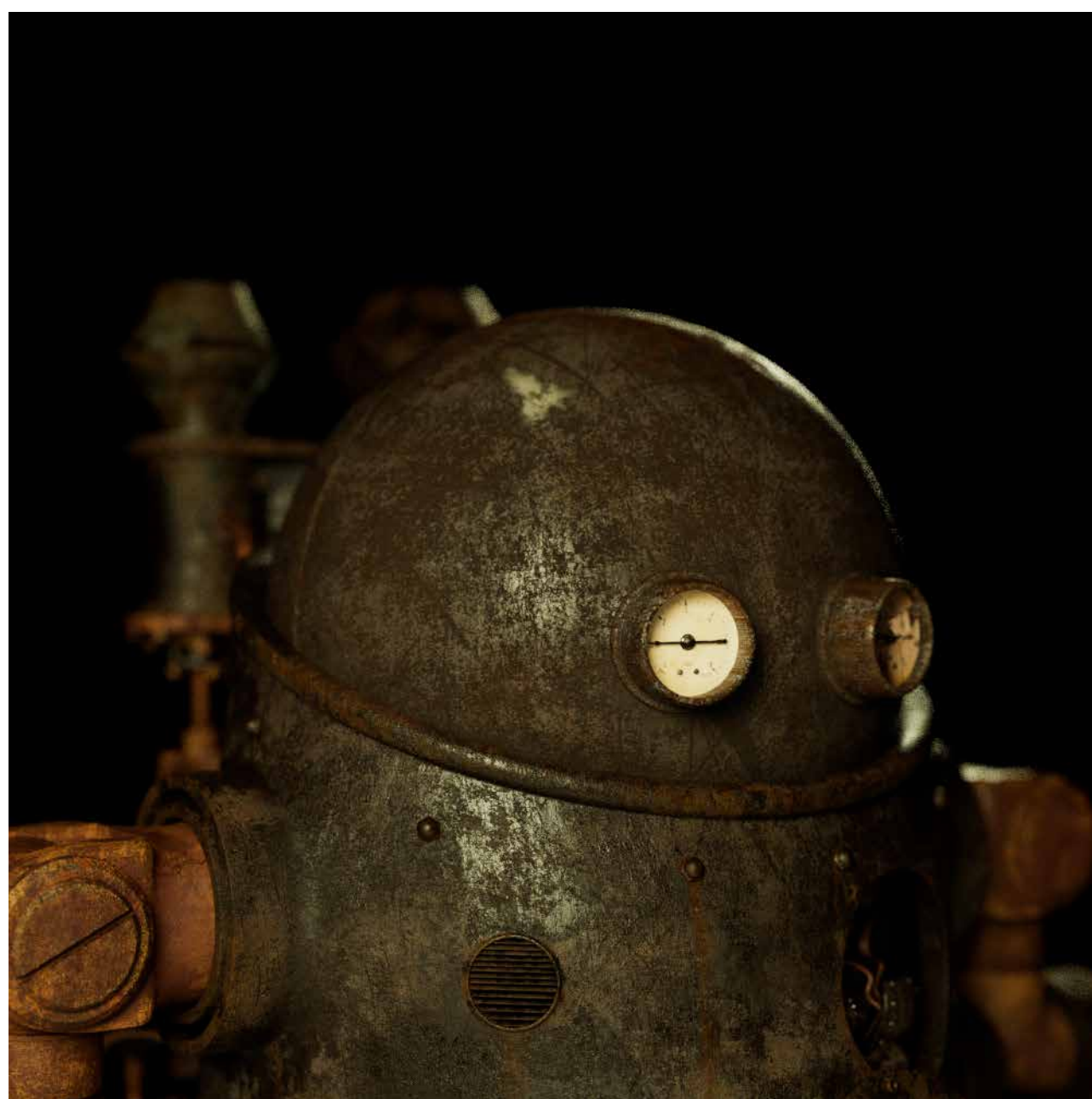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휴가를 위해 VIDO의 미디어 아트가 담긴
2023 마이크로서울 페스티벌에 방문해 보세요**

VIDO 안의 작품들은 다양한 디지털 및 미디어 아트를 포함합니다.
단순한 영상 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화 된 회화와 인스톨레이션들도 업로드 및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vido.gallery를 방문해보세요!

Vido's Artist

이달의 작가 + 작품

'원서(WONSEO)'



VIDEO에서 소개해 드릴 미디어 아티스트는
'원서(WONSEO)' 입니다.

작가는 자신만의 특색이 담긴 작품으로 보는 이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게끔 합니다. 시네마틱한 영상으로 디테일한 연출에 집중하여 작품 속의 작은 오브제도 놓칠 수 없는 아티스트입니다

Q. 원서 작가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마틱한 영상으로 디지털 작업을 하고 있는 3D 아티스트 원서입니다.

**Q. 원서 작가님께서는 디지털 아트 작품을 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작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도 궁금합니다.**

🤖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시작한 지는 이제 2년 정도로 얼마 안 됐습니다. 2년밖에 안 됐음에도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계속 공부해서 작품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고 싶네요.

미디어 아트와 전혀 연관 없는 직무에서 일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물 콘텐츠를 좋아했어요. 그 안에서도 스토리 전개를 위한 디테일한 연출에 관심이 갔습니다. 나름대로 내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앞으로도 내가 완전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마지막 기회는 지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에 이어져 제 인생에서 마지막일 새로운 도전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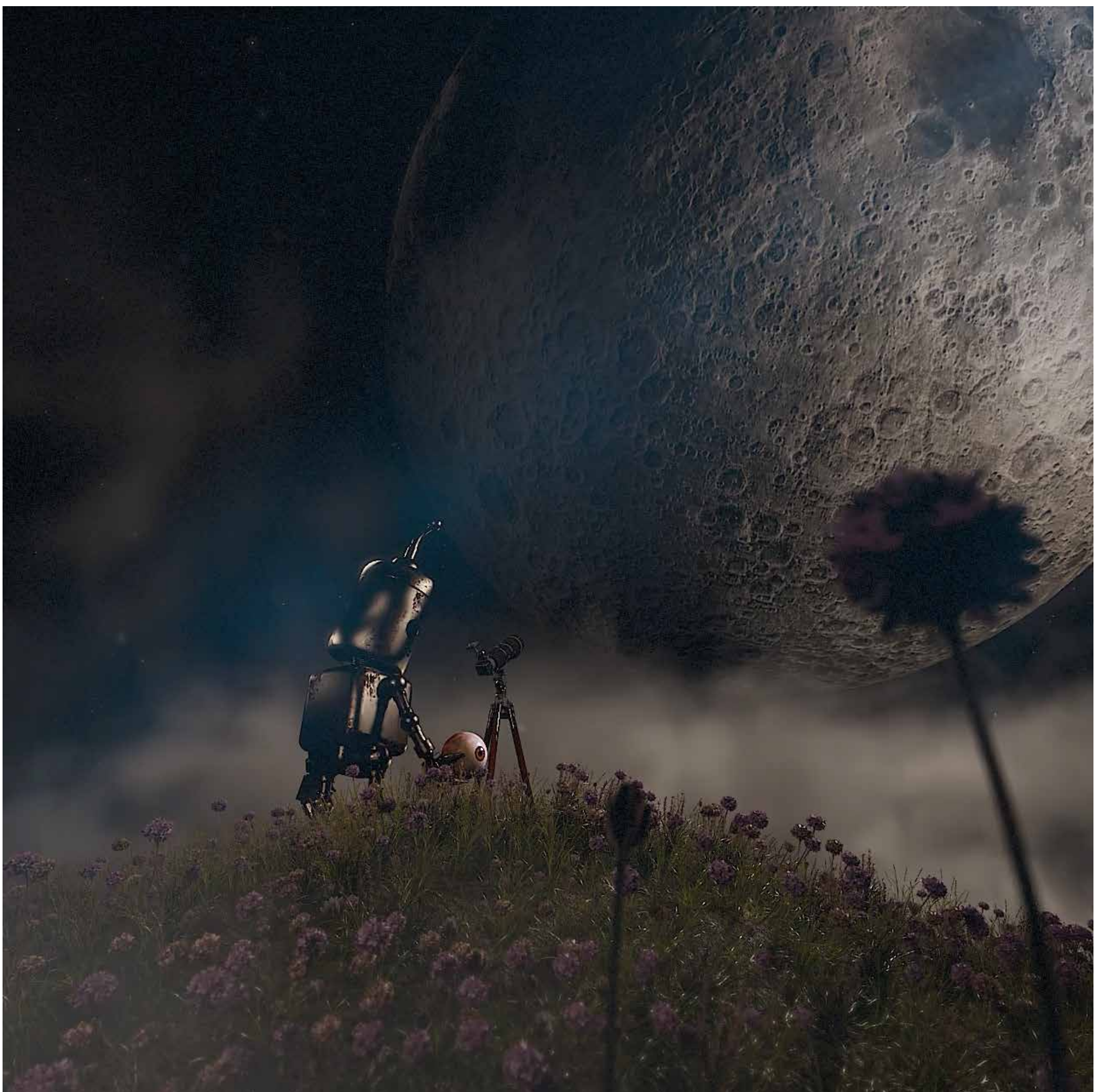


원서, <MONSTER>, 2022, 3D 디지털 아트

Q.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대체로 로봇이나 갑옷을 입은 캐릭터가 주로 등장하는데 이들의 각 어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나요? 스토리를 위해 제작하실 때 집중하시는 요소가 있을까요?

🤖 일단 제 작품의 스토리나 분위기가 밝은 스타일은 아닌 편이에요. 갑옷에 창에 찔리는 장면이나 유혈이 더러 있고요. 그래도 어두운 분위기 그 속에서 희망, 쓸쓸함 등으로 남아 있는 캐릭터의 세세한 감정을 보여 주고 싶어요. 여기서 감정을 발견하는 사람마다 느끼는 바는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더해 열린 감상이나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체로 재질, 텍스처를 신경 써서 작업합니다. 강통의 로고 같은 것도 확대한 썸을 보면 녹슬거나 바랜 재질들이 돋보이도록 했어요. 이런 묘사가 작품의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재질로도 충분히 스토리 전개가 가능하다고 봐요. 시간의 흐름이나 버려진 처지 등 그 상황 안에서 이 캐릭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요소라 집중합니다.



원서, <Can't see>, 2023, 3D 디지털 아트

Q. 스토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캐릭터들마다의 사연이 담겨진 게 느껴집니다. VIDO 월간레포트 구독자 분들에게 작품 하나를 뽑아 스토리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제가 만드는 깡통 로봇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메인으로 삼고 있는 로봇이 제 작가 프로필 이미지기도 한 증기기관 깡통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1차 산업혁명인 증기기관의 시대가 끝나갈 때쯤 당시의 가장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로봇이에요. 끝자락 시기였다 보니 완성된 로봇은 갑자기 2차 산업 혁명이 시작하면서 쓸모가 없어졌죠. 전기의 시대가 도래하고 만들어지자마자 구식 로봇이 됩니다. 한참을 버려진 상태로 남겨지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떠한 계기로 깨어나면서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깨닫고, 시대에 맞지 않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찰합니다.

증기기관 로봇은 VIDO에 업로드도 한 상태인데요. <Restart> 작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꽃이 봄에 새로 태어나듯이, 멈춰 있던 로봇이 일어나며 새로운 생명이 깨어남을 표현했습니다. 증기기관 로봇의 고찰이 시작될 장면인 거죠.





원서, <Death>, 2022, 3D 디지털 아트

Q. 마지막으로 VIDO 플랫폼을 이용하시면서 남기시고 싶은 코멘트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작품이 만들어진 채 끝이 아니라 미디어 캔버스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NFT의 단점은 블록체인에 묶이게 된다는 점 같아요. 그러다 보니 판매가 안 될 때는 전시가 끝나고 나면 작가가 꾸준히 홍보하지 않는 이상 작품이 다른 곳에 노출되기 힘들어요. 하지만 **VIDO**를 통해 제 작품이 여러 곳에서 전시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작품을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VIDO가 성장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서의 작품을 vido.gallery에서 만나보세요.

Follow us

매달 미디어아트 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